

농식품부·현대건설,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업의 첨단화를 위해 손잡다!

- 청년농업인 및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현대건설 업무협약 체결
- 서산 바이오·웰빙·연구 특구 내 농업바이오 단지 조성
- 현장 간담회에서 청년농업인들의 의견 수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4일 서산 현대모비스 연구센터에서 청년농업인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육성을 위해 현대건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과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첨단기술에 친숙한 청년들이 농업에 도전하여 농업·농촌을 이끌어 나갈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선대 회장이 조성한 서산시 부석면 일원의 간척지 일부를 바이오·웰빙·연구 특구(600ha)로 지정받아 자동차 연구시설, 체육·관광 시설 등을 조성 중에 있으며, 농업분야 투자와 청년농업인·스마트팜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자체 자금을 조달하여 농업바이오단지 조성(73ha)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바이오단지는 농업분야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기반을 바탕으로 전문가 양성과 농업 기술 확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반시설 51ha, 전락작물 재배단지 20ha, 연구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관리시설 2ha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건설은 생산·유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반을 조성하여 청년농업인들이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도적 스마트팜 경영체가 입주하여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부지를 분양한다.

또한, 가루쌀 등 전락작물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식량 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고, 자원순환형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하여 바이오에너지 생산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식 후에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에 도전한 동기와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하고, 현장 애로사항 및 다양한 건의사항도 수렴하였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우리 미래농업을 이끌어 나갈 핵심 인력인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모델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실 농지과	책임자	과 장	이승한 (044-201-1731)
		담당자	사무관	이상진 (044-201-1739)